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식이 9일(목)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석지인전도사(대학) 최기찬전도사(신대원)
 -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9일(목)에 귀국합니다.
 - 공동체학교 개학 및 준비
6일(월) 멋쟁이학교 봄학기 개강
11일(토) 꾸러기학교 및 어린이학교 오리엔테이션.
 - 오늘 오후에 역할공동체별로 4/4분기 실행위원회 모입니다.
 - 다음 주익(12익) 오후에 공동체운영위원회 34차 정기회의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동은 권사 (감사)
장미숙 권사 (감사)

강다을 꽃으로 : 조영길 · 박무상 집사 가정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탄자기스탄 대만 일본 유럽단 중국

제 40 - 6 호
2023년 2월 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령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밤 사람을 만나는 밤 뜻을 모으는 밤입니다.

영웅의 어머니

얼마 전 개봉한 뮤지컬 영화 [영웅]은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감독의 표현대로 과연 영화 중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님의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안중근 의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이토 히로부미를 러시아 하얼빈 기차역에서 총으로 살해했고, 이 일로 1910년 루쉰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이 안중근 의사의 32살 마지막 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감동적인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영화를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장면과 곡이 나옵니다.

아들의 수의를 직접 손수 지어 편지와 함께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후 아들의 베넷저고리를 붙들고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 누구도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편지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였다면 이런 편지가, 이런 선택이 가능했을까?

선교와 섬김

마리아라는 세례명에 딱 맞게 조마리아님은 아들의 목숨을 대한독립이라는 대의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러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기꺼이 흘린 누군가의 피와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사형장에서 두려움에 떨던 안중근 의사께서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보고 담대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자신의 길을 지지해주시는 분의 손길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까지 안중근 의사의 신앙의 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고 그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중근 의사셨지만 자신의 안위가 아닌 나라의 존립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지지하면서 끝내 죽으라 말할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은 결코 신앙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어미로써 조마리아님의 이 결단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어머니일까... 진지한 고민을 해봅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86 295 / 287

기도 :

성경 : 요한복음 8장 12-38절

제목 :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1. 내용 :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언하시다. (What)

<문단구분>

12절~20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내 증언은 참되다>

21절~30절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31절~38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2. 의미 : 세상은 어둠 속에 있으며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다. (Why)

- 1) 어둠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한다.
- 2) 약속된 메시아를 찾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 3) 죄의 영향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3. 적용 :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자. (How)

- 1) 빛 되신 예수님의 조명 아래에서 살아가자.
- 2)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에 이르자.
- 3)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자.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2023년 새해를 맞아 두 번의 설 명절을 지내면서 떡국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그대로입니다.

요즈음 많이 생각 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세월의 빠름과 나이가 듦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해가 바뀌고 나이 한 살 더 먹어도 별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백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의 나이와 실제 나이에서 오는 어색함은 어쩔 수 없지만 잘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되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삶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올해 사랑방공동체 생활표어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사랑방 식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43 : 3-4	인도자
2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일서 1 : 9	인도자
452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5 : 13 - 20	설교자
552	사랑방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02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양기모 이명호 / 봉헌위원 : 진정행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공동기도문

저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스스로 녹여 맛이 나게 만듭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맛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짠맛을 잊은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게 됩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이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혼잡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드러나는 삶입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자신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윤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

어린이학교 6학년 졸업여행을 하며

어린이학교에서 6년동안 지내다가 학교를 마무리하며 졸업여행을 왔다. 처음 오는 나라이고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해외 여행이라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된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첫번째 해외 여행이다.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를 하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새로웠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다. 처음 가이드를 맡았을 때는 어렵고 잘못하면 어떻게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어로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행을 할수록 좋아지고 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동생들 선물을 고르는 것과 졸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인것 같다. 다른건 다 좋았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꼭 했으면 좋겠는 것을 고르면 두리안을 꼭 먹고싶다. 이번 여행에는 교장 선생님이 함께 가시지 못해서 아쉬웠다. 다음번에 우리 학년과 어린이 학교 선생님들과 다 함께 여행을 오고 싶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크게 언어, 문화 등등 6학년을 마무리하는 좋은 여행인 것 같다. 그동안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졸업여행을 하고있는 이은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해외 여행을 처음으로 해서 매우 설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 음식과 숙소, 액티비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먹은 사태와 새우국수가 생각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인거 같습니다. 사태거리에서 먹은 고기 사태와 새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태는 바삭한 식감이 좋았고 새우국수는 고소한 맛의 국물이 좋았습니다. 숙소는 다양하게 다녔습니다. 각방 형식의 큐브 부티크 호텔, 방은 좁지만 큰 수영장이 있는 보스 호텔, 그리고 지금 있는 카사 델리오 호텔은 인피니티 배움과 가르침

풀이 있습니다. 저희 학년 세명이 돌아가며 하루 하루를 가이드를 했는데 제가 가이드를 하는 날이 되면 긴장되고 걱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여행했던 장소에 제가 있고 저 또한 벌써 6년이 지나서 졸업여행을 하는 것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가끔 가족도 생각나며 한국이 생각 났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웃고 경험하는 것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마지막까지 배려하며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으며 너무나 많은 광경과 풍경을 보았고 처음 먹는 음식 처음 맞는 냄새가 내게 참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여행중인 어린이 6학년 장하린 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공동체 식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싱가포르는 많은 문화가 융합된 곳입니다. 중국문화, 인도문화, 회교문화 등등 처음 보았던 곳은 차이나 타운이었습니다. 물가도 싸고 질도 좋고 쇼핑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대표적으로 세가지 문화적으로 번영한 거리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리틀 인디아입니다. 각자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는 잠깐 갔다가 차이나타운에는 숙소가 가까워서 많이 갔었습니다. 세군데 모두 그 만의 특성들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매우 덥습니다. 겨울인데 30도가 넘어갑니다. 저도 더워서 죽겠는데 무슬림 여성분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안타깝습니다. 싱가포르는 또 먹는것도 아주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의식주는 날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호커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참 신기하고 다양합니다. 싱가포르에 다양한 먹거리를 푸드코트처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태(꼬치)하고 고랭 들어가는 거는 다 맛있습니다. 싱가포르 문화는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졸업여행을 보내주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어린이학교 6학년 김재효, 이은찬, 장하린 어린이

눈썰매장에 다녀왔어요~

올해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영성수련을 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긴 방학에 부모님인 식구들이 힘드니 하루 날을 잡아서 청년들이 애들이랑 썰매장을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성이, 하온이, 하민이, 아영이 시현이를 데리고 이돈희선생님과 함께 가평 썰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썰매장 운영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라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1등으로 타기 시작해 5시 마지막 차례까지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사람이 많아 일부러 일찍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전세 낸 것처럼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와 하민이와 시현이는 혼자 타고, 하성이, 하온이는 저와 이돈희선생님과 썰매를 탔습니다. 여기를 골라서 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빙워크가 있어서 인데 정말 일일이 들고 올라가지 않아서 너무 편하게 썰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는데 빨리 탄다고 아영이, 하민이, 시현이는 무빙워크보다는 옆에 도보로 올라가는 길로만 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어가는 무시무시한 체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썰매를 타다가 쉬면서 중간에 매식도 하고, 간식도 먹었습니다. 먹을거리가 많은 곳은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먹어서 즐겁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많이 먹어 배부르지만 간식 배는 따로 있다고, 먹고 싶은 간식을 순식간에 골라서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아쉬운 마음에 돌아가기 전까지 “회오리감자도 사주세요” “슬러쉬 사주세요” 등 아이들의 귀여운 요청을 들으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준비하고, 각자 일정을 맞추느라 좀 늦게 가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참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에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 먹으며 신나게 놀아서 좋고, 아이들 없이 쉬는 시간을 가진 부모님들도 좋고, 나름 아이들과 바람 쐬고 와서 저희도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일찍 준비해서 사정상 못 간 아이들까지 다 같이 좋은 곳에 갈 겁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람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88장 455장

성 경 : 요한복음 7:14-18

말 씀 :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마약 근절>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마약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근절을 위한 적절한 방지책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이들이 마약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차단되고 예방도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2. 교회 간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
 - 1) 중보기도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도록
 - 2) 훈련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무림리가 청정 지역으로 잘 보존되고, 또 마을의 여러 구성원들이 잘 융합되어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 2) 어린이 졸업여행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방학 동안 가정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공동생활 부모님들을 위해 청년들이 공동생활 자녀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주었습니다. 유치, 초등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눈썰매장에서 중·고등 학생들은 빙어 낚시터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 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쉽고 큰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애써주신 청년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